

소비자의 정보화 격차에 대한 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이 성 립*(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전공 조교수)

박 명 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서 정 희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인터넷은 오늘날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은 기존의 주요 통신도구인 전화에 비해 여러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보다 비용이 낮고 효율적일 뿐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 기타 문헌 매체를 통해서 보다 인터넷을 통하여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의 용도는 통신과 정보 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오락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회관계망의 형성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는 혁신적인 형태의 시장 출현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이러한 다양한 편익과 이익을 향유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인터넷 사용여부는 정보, 통신, 오락, 거래, 사회적 유대 면에서 소비자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마친 성인 여성의 인터넷 사용여부와 정도,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또는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확대시키고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려면 먼저 개인이 인터넷 사용장비를 갖추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접근이 가능한 물리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리적인 조건과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통계청이 우리 나라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1 정보화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 성인 여자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집에 컴퓨터를 보유하는 비율이 높고 인터넷 접속방법으로 인터넷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가계소득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높고 연령은 낮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성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부이며 취업한 경우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보다 높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 가운데 주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하이고 취업한 경우 서비스 및 판매직, 농어업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는 반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은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이다.